

헝가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5

I. 일반개황

면적	93천 km ²	GDP	1,304억 달러
인구	9.90 백만명	1인당 GDP	13,040달러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Forint (Ft)
대외정책	유로존 가입 추진	환율(달러당)	207.94

- 헝가리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부유럽 내륙국으로 동서 유럽을 잇는 지리점 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한반도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국토면적과 99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OECD(1990), NATO(1999) 가입에 이어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유로존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4월 총선에서 사회당(MSZP)을 누르고 청년민주동맹(Fidesz)이 승리함에 따라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가 8년만에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며 2010년 6월에는 청년민주동맹(Fidesz) 소속의 슈미트 팔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2010년 경제성장률은 플러스로 전환

- EU에 가입한 2004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8%를 기록하였으나, 2006년 이후 유로존 가입을 위한 강력한 긴축 재정정책 시행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 200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8%를 기록함.
-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포린트화 약세로 인한 외화표시 개인채무 누적, IMF 차관(2008년 10월 헝가리 정부는 IMF, EU, 세계은행과 251억 달러 긴급 구제금융 협정 체결) 지원조건 이행을 위한 긴축 재정정책의 지속적 시행으로 인하여 민간소비가 급격히 위축됨. 또 헝가리 주요 무역상대국인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침체가 지속되어 2008~09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8%, -6.7%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10년에는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반전됨. 2011년에는 내수 회복 및 독일 등 주요 유로존 국가의 경제성장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2.8%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는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201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범위 상회

- 2006년에는 헝가리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9%로 이머징 유럽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7년에는 식료품가격(11.5%)과 전기요금(24.6%)이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9%로 급등하였음.
- 2008년 상반기 중에는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조짐이 나타났으나, 동년 하반기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제유가 및 식료품가격이 급락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1%로 둔화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제성장률	3.6	0.8	0.8	-6.7	1.2
재정수지 / GDP	-8.2	-4.5	-4.2	-4.5	-4.2
소비자물가상승률	3.9	7.9	6.1	4.2	4.9

자료: IMF, EIU.

- 2009년에는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인하(20%→18%)되었고 포린트화가 강세를 보여 소비자물가 상승추세가 둔화됨. 에너지 및 서비스 부문의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각각 7.7% 및 6%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2%를 기록하며 전년에 비해 안정됨.
- 2010년에는 헝가리 정부의 긴축재정정책 지속에 따른 내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머징 국가의 경기회복으로 인한 고유가 및 국제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범위(2~4%)를 상회한 4.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1년에는 포린트화 강세로 수입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5%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안정될 전망이다. 여전히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 수준 유지

- 2008년에는 IMF, EU 및 세계은행의 구제금융 지원조건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정책의 시행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4.2%를 기록하며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2009년에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4.5%를 기록하며 2007년 수준으로 다시 확대됨.
- 2010년 4월 새로 출범한 청년민주동맹(Fidesz) 정부는 헝가리의 채무불이행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되자, IMF가 권고한 GDP 대비 3.8% 재정적자 목표치를 충족시키고자 2010년 6월 은행세 도입, 공공부문 인건비 축소 등 긴축 재정을 발표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실시된 총선 및 대선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2010년 재정수지는 정부의 목표수준을 상회한 4.2%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헝가리 의회는 2010년 7월 22일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에 한시적으로 3년간 특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금융기관의 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500억 포린트의 자산까지는 0.15%, 500억 포린트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0.5%의 세율 적용)을 승인함.

○ 그러나 2011년에는 헝가리 정부가 재정수지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민간연금 자산을 공적연금 계정으로 전환할 계획임에 따라 재정수지는 흑자로 반전될 전망이다. 헝가리 정부는 재정수지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연금의 공적연금으로의 전환 외에도 은행세 부과 기한연장, 퇴직금 수급요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은행부문의 과도한 외국인자본 의존도

○ 2008년 10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초래된 헝가리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유출 현상은 완화되고 있으나, 은행부문의 외국인자본 의존도가 높아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 헝가리 제도권 은행 중 외국자본 소유 은행의 비율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기준 헝가리 8대 은행 중 헝가리 은행은 OTP은행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외국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에너지에 대한 높은 수입 비중

○ 헝가리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에 대한 수입 비중이 2009년 기준 약 60%로(EU회원국의 평균 에너지 수입 비중은 55% 수준)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헝가리 최대 원유, 가스 생산업체인 MOL의 원유생산량은 2001~04년 연평균 100만 톤 수준이었으나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에는 연간 70만톤을 생산함. 2008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산

업생산 둔화 등으로 에너지 소비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에너지 수입수요는 높은 수준임.

- 또한 헝가리는 원유 소비량의 100%,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80%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과도한 편임.

나. 성장 잠재력

□ 기업경영여건 순위 여전히 상위권 유지

- 매년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하는 기업경영여건 평가(Doing Business rating)에서 헝가리는 2009년 47/183에서 2010년 46/183으로 평가되어 기업경영여건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상위권 평가순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는 재산등록 및 계약실행 부문에서 투자여건이 악화되었으나 사업개시, 사업허가 및 조세납부 부문에서 투자여건이 개선되며 종합순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됨.

□ 지정학적 이점, 풍부한 고속철 저임금 인적자원 보유 등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 형성

- 헝가리는 중부유럽에 위치하여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우크라이나(7개국)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도로 등 사회 인프라 시설이 양호하여 유럽내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
- 또 헝가리는 영어, 독일어, 불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고 엔지니어링, IT 부문에 고속화된 노동력이 풍부하며 헝가리의 2010년 기준 최저임금은 73,500포린트(270유로) 수준으로 서유럽에 비해 현저히 낮음.
- 헝가리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실적은 2008년 68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는 22억 달러로 급감했고 2010년에도 전년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2011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현상이 완화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3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성과

□ IMF, EU 및 세계은행의 긴급 구제금융 지원 이후 금융위기 완화

- 헝가리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8년 10월 16일, 유럽중앙은행(ECB)은 헝가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50억 유로(73억 달러)의 긴급 자금지원 계획(유로존 이외 국가에 대한 최초의 직접금융지원 사례)을 발표하였으며 2008년 10월 28일 헝가리 정부는 IMF(157억 달러), EU(81억 달러) 및 세계은행(13억 달러)과 총 251억 달러 규모의 2년 만기 구제금융 지원협정을 체결함.
- 2010년 10월에 완료된 IMF, EU 및 세계은행의 구제금융 지원은 헝가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투자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헝가리는 당분간 IMF 대기성 차관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

- 2010년 들어 헝가리에 대한 투자신뢰가 회복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체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2010년 8월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2008년 10월에 체결한 구제금융 협정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하였음. 또 2011년 들어 헝가리 정부가 연이어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당분간 추가적인 대기성 차관 지원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헝가리 정부는 2011년 3월 24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채권발행을 통해 총 37.5억 달러(10년 만기 30억 달러, 30년 만기 7.5억 달러)를 조달하는데 성공하였으며 4월 7일에도 5억 달러(30년 만기)를 추가적으로 조달하였음.

□ 2010월 11월부터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 후 6% 수준 유지

- 헝가리 중앙은행은 포린트화 가치하락 및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06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상승기조를 유지하였으며, 2008년 10월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선진권 투자자들의 급격한 디레버리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8.5%에서 11.5%로 3%포인트 인상하였음.

- 그러나 2009년 하반기 들어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금융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10개월 연속 총 4.25% 포인트 인하한 5.25% 수준으로 조정하였음.
- 2010년 하반기 들어 이머징 국가의 경기회복으로 국제 원유 및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며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헝가리의 201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가 통화당국의 목표범위(2~4%)를 상회함에 따라 2010년 11월 헝가리 정부는 2008년 10월 이후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5.5%로 0.25% 포인트 인상함. 이후 2010년 12월 및 2011년 1월에도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인상하였으며 현재 헝가리의 기준금리는 6.0%로 유지되고 있음.

3. 대외거래

□ 경상수지는 2010년에 흑자로 반전

- 2009년에는 유로존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긴축재정정책 및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수입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며 상품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였음. 상품수지는 흑자를 기록한 데 반해 소득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은 0.5%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축소됨.
- 2010년 경상수지는 유로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상품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며 소득수지 적자폭을 상쇄하여 GDP 대비 2.1%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도 경상수지는 GDP 대비 1.7%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흑자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은 점진적 증가추세

- 헝가리의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기준 336억 달러로 월평균수입의 2.6개월분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10월 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후 2009년 7월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채권 발행으로 10억 유로의 외화를 조달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2009년 말에는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이 4.3개월 수준으로 증가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 상 수 지	-8,626	-9,578	-11,116	473	3,088
경 상 수 지 / GDP	-7.7	-7.0	-7.2	-0.5	2.1
상 품 수 지	-3,084	-175	-792	4,782	6,212
수 출	73,455	93,844	107,239	81,563	93,294
수 입	76,540	94,019	108,031	76,780	87,082
외 환 보 유 액	21,316	23,773	33,620	42,479	43,581
총 외 채 잔 액	107,677	138,338	164,510	147,680	129,562
총외채잔액/GDP	95.5	100.3	105.8	114.7	99.3
D S R	24.1	20.9	26.6	34.1	26.9

자료: IFS, EIU.

- 2010년 말에는 헝가리의 외환보유액 규모가 43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외환보유액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010년 말 기준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은 4.3개월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총외채잔액은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

- 2005~06년 유동성 증가에 따라 저금리의 외화신용이 가능해져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외차입이 증가하면서 2006년 이후 총외채잔액이 급증하였고, 2008년 말에는 포린트화 약세의 영향으로 총외채잔액이 1,645억 달러(GDP 대비 105.8%)에 달함.
- 2009년에는 환율이 안정되고 해외차입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총외채잔액이 1,477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GDP가 감소하여 114.7%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2010년에도 총외채잔액 감소추세가 이어져 연말 기준 총외채잔액은 1,29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은 99.3%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DSR은 30%에 달하는 수준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09년에 헝가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30%를 넘어섰으나 2010

년에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9%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헝가리의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로존의 경기회복세가 부진하여 수출이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분간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청년민주동맹(Fidesz) 정권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지속

- 2010년 4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에서 사회민주당(MSZP)을 누르고 중도우파 성향의 청년민주동맹(Fidesz)이 승리함에 따라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가 8년만에 재집권에 성공하였음. 청년민주동맹(Fidesz)은 전체 의석(386석)의 3분의 2보다 많은 263석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야당의 지지없이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한 거대 여당이 된 반면, 사회당(MSZP)은 59석, 극우성향의 요빅당(Jobbik)은 47석을 확보하는 데 그침.

* 사회당(MSZP)은 유로화 조기 도입을 목표로 강력한 긴축 재정정책을 시행한 결과, 경기침체 및 실업률 상승이 초래되었고,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저성장과 정부채무 누적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직면함. 결국 사회당(MSZP) 정부는 공무원 임금 삭감, 복지지출 삭감, 세금 인상 등의 자구노력 이행을 조건으로 IMF, EU 및 세계은행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사회당 정부에 대한 헝가리 국민의 지지가 급격히 하락함.

- 총선에 이어 2010년 6월 29일 헝가리 의회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청년민주동맹(Fidesz)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슈미트 팔 국회의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 슈미트 팔 대통령의 전임인 라슬로 쇼음 대통령은 청년민주동맹(Fidesz) 소속이었으나 중립적인 정치노선으로 청년민

주동맹(Fidesz)과 갈등관계를 지속한 바 있으나 슈미트 팔 대통령 당선자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내각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 안정성이 제고됨.

- 청년민주동맹(Fidesz) 정권은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2011년에 들어서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 실시예정인 총선에서도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야당간 통합이 미흡한 점도 집권여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기여

- 집권여당인 청년민주동맹(Fidesz)에 대해 사회당(MSZP), 요빅당(Jobbik), 차별화된 정책당(LMP) 등 다수의 야당이 있으나, 정치적 성향차이로 인해 야당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각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 수가 집권여당에 비해 미미하여 집권여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실업률은 다소 높은 수준이나 사회불안 가능성은 낮음

- 200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계층간, 지역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는 금융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급속히 상승하였음. 2010년 4월 11.8%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2011년 3월 10.8%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발생 이전의 8%대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실업률: 8.1%('08.9) → 9.6%('09.6) → 11.8%('10.4) → 10.8%('11.3)

- 그러나 2010년 들어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반전되고 산업생산증가율이 회복되는 등 헝가리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2011년에는 고용여건이 개선되며 실업률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실업률에 따른 대규모 사회불안은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인종갈등이 잠재되어 있으나 사회는 안정상태 유지

- 헝가리에는 60만~80만명(전체 인구의 6~8% 수준)의 집시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제, 사회적으로 최하층을 형성하고 있음. 집시는 대부분 단순노동을 제공하거나 정부의 사회복지 수당에 의존하여 생활함.
- 극우주의 성향의 요빅당(Jobbik) 지지자들을 포함한 헝가리 극우주의자들과 집시 간 인종갈등이 잠재되어 있으나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3. 국제관계

□ EU와의 친밀한 관계유지 노력

- 청년민주동맹(Fidesz) 정부는 EU 회원국과의 친밀한 관계유지를 중요한 외교기조로 삼고 있으며 특히 EU 내 중동부 유럽 국가간 관계강화를 중시하는 등 실리 위주의 외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헝가리는 2011년 상반기 EU 이사회 순번의장국을 수임하는 등 EU 회원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06년 중반 이후 슬로바키아와의 대립관계 악화

- 2006년 6월 슬로바키아 총선에서 극우성향의 국민당(SNS)이 연정을 구성한 이후 슬로바키아 내 헝가리계 민족에 대한 차별이 초래됨에 따라 양국간 긴장이 조성되었음.
- 2009년 8월 21일 쇼요프 대통령은 슬로바키아 코마르노에서 개최된 11세기 헝가리국왕 성(聖)슈테판 1세 동상 공개행사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슬로바키아 정부가 이를 거절함에 따라 양국간 적대감정이 증가하였음. 이 사건 이후 주헝가리 슬로바키아대사관에 화염병이 투척되는 일이 발생함. 또한 슬로바키아 정부가 공적 업무시 슬로바키아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언어법을 승인하여 양국간 민족감정 대립이 고조되었음.

○ 2010년 6월 슬로바키아 총선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스메르당(Smer)이 승리하여 안 슬로타 총재가 총리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슬로바키아측의 대헝가리 자극 요인은 감소한 반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계 타국민에게 헝가리 국적을 이중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여권법을 의회에 통과시키며 슬로바키아 정부와 마찰을 초래함.

* 슬로바키아 정부는 헝가리계 슬로바키아 국민 약 50만명(주로 헝가리와 접경지역에 거주)이 헝가리 국적을 취득하면 슬로바키아 접경지역에 대한 헝가리 지배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동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구조는 점진적 개선

○ 2005~06년 국제 유동성 증가에 따른 저금리 외화신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외차입이 증가하면서 2006년 이후 총외채잔액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2007년과 2008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각각 100.3% 및 105.8%를 기록하였음.

○ 2009년 말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114.7%, 2010년 말 추정치는 99.3%로 헝가리의 외채상환 부담은 여전히 큰 편이나 헝가리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외채잔액은 감소추세에 있어 외채상환 구조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ECA 인수태도

- US Eximbank : 전액 인수 가능, 한도 적용 없음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영국 ECGD : 전액 인수 가능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2 (2011.7.)	C1 (2010.8.)
OECD	0등급 (2011.1.)	0등급 (2010.1.)
S&P	BBB- (2010.7.)	BBB (2008.11.)
Moody's	Baa3 (2011.6)	Baa1 (2009.3)
Fitch	BBB- (2010.12.)	BBB (2008.11)

□ 2010년 말 이후 헝가리 국가신용등급 유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헝가리에 대하여 주요 평가기관 들로부터 등급 하향조정이 계속적으로 나타남. 2008년 11월 S&P 및 Fitch가 BBB+에서 BBB로, Moody's가 A2에서 A3로 헝가리 국가신용등급 을 각각 한 단계 하향조정한데 이어 2009년 3월 S&P는 BBB에서 BBB-로, Moody's는 A3에서 Baa1으로 하향조정함. 또 2010년 12월에는 Moody's 가 Baa1에서 Baa3으로, Fitch는 BBB에서 BBB-로 추가 하향조정하였음.

○ 그러나 2010년 말 이후에는 헝가리에 대한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 등급이 추가적인 조정없이 유지되고 있음.

- * OECD: 3등급(2008.1)→4등급(2009.1)→0등급(2010.1)→0등급(2011.1)
- * S&P: BBB+(2006.6)→BBB(2008.11)→BBB-(2009.3)→BBB-(2010.7)
- * Moody's: A2(2006.12)→A3(2008.11)→Baa1(2009.3)→Baa3(2010.12)→Baa3(2011.6)
- * Fitch: A-(2000.11)→BBB+(2005.12)→BBB(2008.11)→BBB-(2010.12)
- * ICRG: 65/140(2008.10)→78/140(2009.8)→57/140(2010.5)→54/140(2011.5)
- * Euromoney: 64/186(2009.9)→46/186(2010.3)→53/186(2010.9)→47/186(2011.3)
- * I.I.: 48/171(2008.9)→55/177(2009.3)→56/178(2009.9)→57/178(2010.9)→60/178(2011.3)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89년 2월 1일(북한과는 1948년 11월 11일)

- 양국간 수교 역사는 짧은 편이나, 경제교류 확대를 바탕으로 하여 정치, 외교, 문화, 학술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관계 구축이 진전되고 있음.

* 한국-헝가리 주요 협정체결 현황

: 투자보장협정(1988), 과학기술협정(1989), 이중과세방지협정(1989), 사증면제협정(1991), 사회보장협정(2006)

□ 2010년 양국간 교역규모 사상 최고치 기록

○ 1989년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27.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영상기기, 반도체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농산물, 자동차부품 등임.

* 한국-헝가리 교역규모 추이

: 12.5억 달러(2005)→14.3억 달러(2006)→21.5억 달러(2007)→18.7억 달러(2008)→20.1억 달러(2009)→27.9억 달러(2010)

* 대 헝가리 수출: 15.1억 달러(2008), 17.0억 달러(2009), 23.9억 달러(2010)
(전년 대비 40.6% 증가)

* 대 헝가리 수입: 3.6억 달러(2008), 3.0억 달러(2009), 4.0억 달러(2010)(전년 대비 33.3% 증가)

□ 해외직접투자현황: 71건, 3.7억 달러('11년 3월 말 누계기준)

○ 2007~09년 연도별 직접투자 규모는 2007년 1,538만 달러, 2008년 264만 달러(전년 대비 -82.8%), 2009년 198만 달러(전년 대비 -25.0%)로 최근 우리기업의 대 헝가리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1,378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한·헝가리 교역 규모

단위: 만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151,274	170,437	238,542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수 입	36,143	30,439	40,090	농산물, 자동차부품
합 계	187,417	200,876	278,632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헝가리 경제는 2009년 4분기부터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2010년에는 수출 증가, 내수 회복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의 -6.7%에서 1.2%로 전환되었고 경상수지는 주요 수출시장인 유로존의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GDP 대비 2.1%의 흑자를 기록함. 반면, 201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 원유 및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라 중앙은행의 목표범위(2~4%)를 상회한 4.9%를 기록하였음. 또, 재정수지는 2010년에도 적자추세를 지속하였는데, 이는 총선 및 대선 실시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헝가리의 외환 및 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여 2008년 10월에는 IMF, EU 및 세계은행으로부터 251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으나 2010년 들어 헝가리에 대한 투자신뢰가 회복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체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당분간 IMF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4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청년민주당(Fidesz)이 승리하며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8년만에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며 6월에 실시된 대선에서는 청년민주당(Fidesz)의 슈미트 팔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당선됨. 슈미트 팔 대통령은 내각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민주당(Fidesz) 정권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2011년에 들어서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수행하고 있어 정치안정성이 제고됨.
- 헝가리의 사회적 안정도는 양호하며 소요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하였으나 2010년 4월을 정점으로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어 실업률에 따른 대규모 사회불안은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헝가리에는 극우주의자들과 집시 간 갈등이 잠재되어 있으나 사회안정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
-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헝가리에 대해 일제히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였으나 2010년 말 이후에는 헝가리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없이 등급이 유지되고 있음.

조사역 최희정 (☎02-3779-5711)

E-mail: heej_choi@koreaexim.go.kr